

지역 소식통

전북청년창업페어

‘정정화화’ 성황리 마무리

정읍시와 정읍시지역활성화센터가 지난 13일 주최·주관한 전북청년창업페어 ‘정정화화’가 달하노피콤 컨퍼런스센터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20개 이상의 기업과 청년창업가가 참여해 홍보·창업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고용 가능 기업들이 직접 참여한 직업상담·고용유치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성공 창업가 토크쇼에는 유튜브 24만 구독자를 보유한 ‘무방우터’가 참여해 자신의 창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 세션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장마철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 실시

정읍시 장마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장마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해 사전에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정읍천 등진강, 옥정호 유역 인근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집지역 액비저장시설 및 상습 민원 발생지, 불법 퇴비처리지역 등을 중심으로 점검 기간 중 우천 시 야간 지도·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분뇨 또는 퇴비를 하천 주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축산폐수 무단 배출 행위 △퇴비사 내 유입된 빗물로 발생한 퇴비 침출수 외부 유출 행위 △비밀배출구 설치 등으로 장마기간 동안 단속활동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형 사회서비스 사업 협약 체결

## 부안군, 초고령사회 신노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대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5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의 4개소와 부안형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사업 다년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부안군의 지역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신노년 세대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 김인 지역본부장,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김성태 지회장 국립공원공단 번산보호국립공원사무소 이경식 소장 부안우체국 임선옥 국장을 비롯해 각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에는 60세 이상 어르신 50명이 참여하고 총사업비 2억 3400만원인 중 국비(한국노인인력개발원) 1억 700만원을 확보했다.

오는 1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일자리 참여자들은 지역 내 거점에 배치돼 무명 페트병 수거,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 캠페인 등의 환경보호 활동을 추진한다.

참여자들은 수거한 무명 페트병은 세척·분쇄 등의 공정을 거쳐 재판매되며 판매된 수익금은 연말에 부안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인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사회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현안을 해소하는 지역 맞춤형 선도모델 일자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사업 일자를 통해 추가로 50명을 확보해 4000명 달성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이원택 의원 동행 국가예산 확보 기재부 방문

## 권익현 부안군수, 기재부 예산실 방문 과소·미반영 핵심사업 정부예산안 반영 건의

권익현 부안군수가 15일 부안군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2025년도 국가예산 증액을 건의하기 위해 이원택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강준모 국토교통예산과장 조규산 농림해양예산과장, 문상호 문화예산과장, 이민호 기후환경예산과장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군 주요 현안사업은 왕포~작당 낚시복합타운 조성, 격포 여객선터미널 대체 건립, 위도 깊은금 지하수 저류댐 설치, 우분 고형연료화시설 설치, 백석지구 논공단지 배수개선사업,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깃벌



치유센터 조성 등 10개 사업이다.

특히 격포 여객선터미널 대체 건립은 기존 여객선터미널의 시설 노후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문화·전시공간 등을 갖춘 현대화된 여객선터미널을 건립하는 사

업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기재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 풍천장어’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선정

고창 풍천장어가 한국 관광을 이끌 대한민국 대표음식 33선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15일 고창군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방한 관광객을 대상, 음식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브랜드 테스트 유어 코리아(Taste your Korea)를 개발하고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을 선정했다.

테스트 유어 코리아는 ‘당신이 좋아하는 한국의 다양한 맛을 즐겨보세요’라는 의미다. 한국관광 통합 브랜드 ‘이미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와 연계해 제작했다는 설



명이다.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은 외식·관광업계와 학계, 홍보 마케팅 전문가들로 구성된 음식관광 자문단

을 통해 각 지역을 대표하고,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한국의 음식 콘텐츠를 △지역 대표 음식 △지역 대표 계절 식재료 △지역 대표 전통주 등을 주제로 선정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고창풍천장어와 함께 전주 비빔밥이 뽑혔다. 풍천장어는 고창을 대표하는 특산물 중 하나로 유달리 담백하고 구수하다. 북분자갈과 곁들이면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시켜 주고 풍천장어에 함유된 비타민 E와 혼합돼 동맥경화, 암, 노화억제, 피로회복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HOT한데 COOL하다!’

## 정읍 물빛 축제, 정읍천 어린이축구장 일원서 8월 1~4일까지

‘여름’과 ‘젊음’, ‘활합’을 연계한 차별화된 젊음의 여름 축제가 내달 정읍천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열린다.

시는 ‘2024 정읍물빛축제(이하 물빛축제)’를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는 올해 물빛 축제는 정읍의 대표 명소인 정읍천과 지난 6월 개장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전국 최초 복합형 비박분수인 미로분수와 연계한 축제로 기획됐다.

올해 축제에서는 낮에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게임과 물놀이 등 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저녁 7시부터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인기가수와 그룹의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다.

특히 MZ세대에 특화된 아주 특별한 축제를 내세우고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EDM(Electronic Dance Music)을 기본으로 인기 걸그룹 하이키와 내로라하는 힙합가수인 단발리와 김효은, 크라이닉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육종완 밴드가 함께하는 공연을 준비했다. 특별히 본 공연에 앞서 지역의 개 많은 청소년을 위한 자유무대도 운영한다.

여기에 물빛축제에 걸맞게 물총싸움과 물풍선게임 등 수중 운동화는 물론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워



터슬라이드와 워터볼 등 다양한 물놀이 기구도 설치한다.

시는 미로분수 인근에 각종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고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한껏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물놀이 시설은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18일까지 연장 운영기로 했다.

첫날인 1일 뛰어난 가창력과 댄스 실력을 갖춘 걸그룹인 하이키가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개막식은 둘째 날인 2일 저녁 7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LED 스크린 터치 세레머니와 함께 물 총포를 쏘아올리는 개막퍼포먼스와 단발릭·김효은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3일째는 ‘인디밴드계의 조상’이라 불리는 크라이닉, 4일째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사와 레트로한 멜로디 음악으로 사랑받고 있는 육종완밴드가 시원하고 재미있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이학수 정읍시장, 시민 안전 책임지는 행정 당부

이학수 시장은 15일 영상 간부회를 갖고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급 상황에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 적절한 대처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한 교육의 시간을 마련해 대처 능력을 높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현안을 공유하면서 부족한 국세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100억 이상 국책사업 발굴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이날 “정읍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정읍천-정읍역 핫플레이스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물빛축제가 열린다”며 “시민들과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세세하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현안을 공유하면서 부족한 국세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100억 이상 국책사업 발굴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이날 “정읍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정읍천-정읍역 핫플레이스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물빛축제가 열린다”며 “시민들과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세세하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벼 전체 재배면적에 긴급 예비비 편성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장마철 벼 병해충 종합방제에 총력전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잎도열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기방제를 놓칠 경우 이삭도열병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중국 등지에서 가난을 타고 날아오는 비래해충의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종합방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긴급 예비비를 편성하고 벼 병

해충 공동공방제지원에 총사업비 7억 3000만원(자부담액 1900만원 등)을 전체 벼 경작지(1만115ha)에 종합방제 약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병해충 예방방제단과 읍면농업인상담소와 함께 벼 품질과 수확량에 큰 영향을 주는 병해충을 긴급방제하기 위해 일제 출장을 나간다. 방제와 약제살포 시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